

중도입국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을 연속다중매개로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

정보라*, 박현승**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성산호대학원 대학교 효교육학과 교수**

The Impact of Immigrant Youth's Cultural Adaptation Stress on School Life via Constant Multiple Mediation of Social Support and Self-esteem

Bora Jung*, Hyun-Seung Park**

Ph.D candidate Welfare at Kyonggi University*,

Professor, Department of Filial Duty Education Sungsan Hyo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중도입국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을 연속다중매개로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2기 2차년도 조사에 참여한 중도입국 청소년 164명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중도입국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학교생활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중도입국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사회적 지지를 거쳐 학교생활적응관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중도입국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자아존중감을 거쳐 학교생활적응관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중도입국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는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을 연속하여 학교생활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개별 매개효과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기초로 중도입국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였으며, 실천적·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주제어 : 중도입국청소년, 문화적응스트레스, 학교생활적응,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effects of acculturative stress on school performance of mid-career immigrant adolescents through the continuous multimodal mediation of social support and self-esteem. For this purpose, data from 164 mid-immigrant adolescents who participated in the second year of the Multicultural Youth Panel Survey were utilized and analyzed. The results showed that, first, acculturation stress significantly influenced school adjustment; second, acculturation stress significantly influenced school adjustment through social support; and third, acculturation stress significantly influenced school adjustment relationships. Third, acculturative stress had no significant effect on the school adjustment relationship through self-esteem. Fourth, acculturative stress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school adjustment through social support and self-esteem, but there was an individual mediation effect.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the authors discussed the interventions to support the school adjustment of immigrant adolescents and made practical and policy suggestions.

Key Words : Immigrant youth, acculturation stress, school adjustment, social support, self-esteem.

Received 30 Sep 2024, Revised 18 Oct 2024

Accepted 21 Oct 2024

Corresponding Author: Hyun Seung Park

(Sungsan Hyo University)

Email: geumbat1004@daum.net

ISSN: 2466-1139(Print)

ISSN: 2714-013X(Online)

© Industrial Promotion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한국 사회는 외국인 노동자, 국제결혼이주여성, 유학생, 북한이탈주민 등의 다문화배경을 지닌 사람들의 유입이 급증하면서 다문화사회로 진입하였다.

특히 우리나라가 다문화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게 된 이유는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증가하고 할 수 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23)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3년 12월 말 기준 결혼이민자는 174,895명으로 2006년 93,789명 대비 53.6%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다문화가정자녀 또한 증가하고 있다. 한국에서 태어나 자란 다문화가정의 자녀의 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외국에서 태어나 성장하다가 생애 중간에 한국에 입국한 다문화가정 청소년인 중도입국청소년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중도입국청소년은 2000년대 국제결혼 재혼가정의 증가와 2005년 이후 중국동포와 고려인 후손들이 국적을 회복하여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한국으로 입국하면서 더욱 증가하기 시작하였다[7].

한국에 입국한 다문화청소년들은 한국의 학교에 입학하게 되어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며 교육을 받게 된다. 중도입국청소년에게 학교는 학습을 하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의 문화를 처음으로 접하게 되는 공간이며 학습활동, 학교 및 사회규칙 등을 배우며 한국문화를 학습하는 장소이기도하기 때문에[19] 학교는 중도입국청소년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중도입국청소년들은 새로운 환경과 문화를 경험하면서 문화적응의 어려움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어려움은 학교생활에서도 경험하게 되어 학습부진, 학교중도탈락, 낮은 취학률과 진학률 등 학교생활에서 부적응 문제 등이 나타나고 있다.

중도입국청소년의 이러한 한국 학교에서의 부적응 문제는 중도입국청소년들이 문화적응스트레스를 경험함으로써 나타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학교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들의 부적응의 문제는 또 다른 사회문제를 초래 할 수 있기 때문에 중도입국청소년의 학교적응문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중도입국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학교적응과 관련한 연구들은 보고되고 있지만, 중도입국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학교적응 사이에서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을 연속다중매개로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중도입국청소년들의 학교생활적응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중도입국청소년

중도입국청소년이란 타국에서 출생과 성장을 하던 중 외국인 부모의 한국 내 취업 및 재혼 등으로 한국에 입국한 청소년을 말한다[15]. 법무부에서는 결혼이민자의 친혼 관계에서 출생하여 입국한 만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혹은 귀화한 미성년자를 중도입국 청소년을 중도입국청소년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12], 교육부는 국제결혼 가정 자녀 중 외국에서 태어나 부모와 함께 중도에 국내로 입국한 자녀를 중도입국 자녀 정의하고 있다[7].

2.2 문화적응스트레스

중도입국청소년은 본인이 태어나고 자란 문화에서 한국이라는 새로운 나라로이주하여 새로운 환경과 문화를 경험하면서 문화적응의 어려움을 겪는다. 이 과정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문화적응 스트레스[18][21][22]라고 할 수 있다. 문화적응스트레스는 복지감과 만족감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21] 문화적응과정에서 문화적응스트레스를 최소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화적응스트레스는 중도입국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과 학교에서 경험하는 문화차이, 친구들과의 관계, 부족한 한국어실력 등으로 인해 문화적응스트레스를 크게 경험함으로써 인해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할 뿐만 아니라[3][4]문화적응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학업중단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3]. 선행연구를 통하여 문화적응스트레스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 하였다.

2.3 사회적지지

사회적 지지는 문화적응스트레스를 극복하는데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높더라도, 친구, 교사, 부모의지지 등 사회적

지지가 높다면 긍정적인 사회관계를 형성·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도입국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5].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 간의 유의한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생활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중도입국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직접적으로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을 거쳐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추론 할 수 있다.

2.4. 자아존중감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크게 경험할 수록 우울, 내적 소외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되어 이들의 심리적인 부분에도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6][11].

3. 연구 방법

3.1 연구 방법 및 대상

본 연구는 중도입국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학교적응과의 관계를 알아보고, 문화적응스트레스와 학교적응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의 매개역할의 영향 관련성 파악을 목적으로 한 연구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다문화청소년패널 2기 2차년도 데이터를 활용하여, 중도입국 청소년 164명을 최종결과 분석에 활용하였다. 자료는 SPSS 25.0을 활용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 분석,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중도입국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의 연속다중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PROCESS macro 4.1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PROCESS macro model 6으로 분석하였고, 5,000회의 부트스트래핑을 통해 연속다중매개효과와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3.2 연구 가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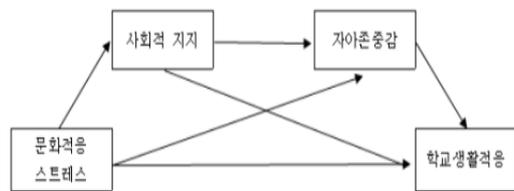
본 연구는 중도입국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규명하고,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의 연속다중매개효과를 검증하는 데 목적을 두

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 가설 1. 중도입국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2. 중도입국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사회적 지지를 거쳐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3. 중도입국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자아존중감을 거쳐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4. 중도입국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는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을 연속하여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3.3 연구 모형

본 연구는 중도입국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 둘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이 연속매개 역할을 하는지를 기존 연구를 기반으로 모형을 설정 하였다. 본 연구의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4. 연구 결과

4.1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주요 변인들 간의 정규성 분포 검증을 위하여 기술통계를 실시한 결과, 모든 변인들의 절대값이 왜도 2 이상, 첨도 7 이상으로 나타나지 않아 정규성이 미 충족될 확률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20].

<표 1> 기술통계분석 결과

구분	N	최소 값	최대 값	평균	표준 편차	예도	첨도
문화적응스트레스	164	1.00	2.78	1.32	.390	1.41	1.52
학교적응	164	1.75	4.00	3.19	.486	-0.21	-1.08
사회적 지지	164	1.56	4.67	3.62	.525	-0.15	.665
자아존중감	164	1.33	4.00	3.26	.539	-.379	.630

4.2 주요 변수의 상관분석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문화적응스트레스, 학교적응,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피어슨의 상관계수를 확인한 결과 모든 변수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상관관계분석 결과

구분	문화적응스트레스	학교적응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문화적응스트레스	1			
학교적응	-.335**	1		
사회적 지지	-.313**	.612**	1	
자아존중감	-.253**	.409**	.627**	1

*p<.05, **p<.01, ***p<.001

4.3 문화적응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의 연속다중매개효과

중도입국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이 연속적으로 매개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 model 6을 적용하여 연속다중매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중도입국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학교생활적응을 각각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으로 투입한 후 사회적 지지를 첫 번째 매개변인으로, 자아존중감을 두 번째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였다. 그 결과 중도입국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는 사회적 지지(B=-.428, p<.00

1)와 학교적응(B=-.1955, p<.01)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문화적응스트레스는 자아존중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지지는 자아존중감(B=.6235, p<.001)과 학교적응(B=.5056, p<.001)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중도입국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학교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참조).

<표 3> 중도입국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의 순차적 매개효과

종속 변인	독립 변인	B	S.E.	t	95% CL		F (df)
					LL	UL	
사회적 지지 (M1)	문화적응스트레스 (X)	-.422	.100	-4.20***	-.620	-.224	-.313
	자아존중감 (M2)	-.087	.089	-.978	-.263	.089	-.603
학교적응 (Y)	문화적응스트레스 (X)	-.196	.081	-2.43**	-3.36	-.036	-.157
	사회적 지지 (M1)	.6235	.066	9.42***	.493	.754	.607
자아존중감 (M2)	문화적응스트레스 (X)	-.196	.081	-2.43**	-3.36	-.036	-.157
	사회적 지지 (M1)	.506	.074	6.80***	.359	.653	.549
학교적응 (Y)	자아존중감 (M2)	.024	.071	.330	-.117	.164	.026

*p<.05, **p<.01, ***p<.001

한편 이러한 간접효과의 신뢰구간을 추정하기 위해 Bootstrapping을 시행한 결과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중도입국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총효과(Effect= -.4170, p<.001)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결과적으로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이 이중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또한 직접효과(Effect=-.1955, p<.05)와 개별 매개효과의 총합(Effect=-.2215, CI=-.3548 ~ -.0363)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중도입국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와 학교생활적응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이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표 4> 중도입국청소년의 문화적응스와 학교생활적응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의 간접효과 검증

	B	S.E.	t	95% CL	
				LL	UL
총효과	-.042	-.092	-4.53***	-.560	-.235
직접효과	-.196	.807	-2.43*	-.355	-.036
간접효과					
전체	-.222	.054		-.335	-.121
X→M1→Y	-.213	.052		-.319	-.119
X→M2→Y	-.002	.009		-.024	.016
X→M1→M2→Y	-.006	.018		-.042	.029

*p<.05, **p<.01, ***p<.001

5. 결론 및 제언

5.1 결론

본 연구에서 중도입국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의 연속다중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도입국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학교생활적응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상균 외[10], 최경란 외[16]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중도입국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학교생활 부적응을 초래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중도입국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는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전병주[13]의 중도입국 청소년의 대인관계가 학교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문화적응스트레스와도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중도입국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학교적응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은 부분 매개효과는 유의미하게 검증되지 않았다. 이는 전수정·윤혜미[14]와 손은영·서호찬[8]의 연구결과와는 상반되게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경로를 탐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

접적인 비교는 제한 될 수 있다. 따라서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자아존중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도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도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넷째, 중도입국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의 이중매개효과는 유의미하게 검증되지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중도입국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학교적응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의 이중매개효과는 없었지만 개별 매개효과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도입국청소년의 원활한 학교적응을 위해서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면서 사회적 지지를 향상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2 함의 및 제언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관련 정책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도입국청소년이 경험하는 문화적응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 및 지원이 필요하다. 중도입국청소년이 한국 이주 초기에 의사소통의 제한, 학업부담감, 가족 및 친구에 대한 지지체계 부족 등으로 많은 문화적응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1], 이를 초기부터 관리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복합적이고 개별화 된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중도입국청소년의 학교적응에서 사회적 지지 또한 중요한 요인으로 사회적 지지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중도입국 청소년이 부모, 또래, 교사 등의 지지를 더 크게 느낄 수 있도록 서로 함께하는 프로그램이나 사회적 관계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이 부분 매개효과가 유의미하게 검증되지는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중도입국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심리사회적 지원 또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넷째, 중도입국청소년의 이주 후 안정적인 적응과정에서 학교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소속감이 중도입국청소년들로 하여금 한국의 제도권 안에 진입했음을 알려주는 증표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도입국청소년이 공교육시스템 진입에 있어 서류미비, 체류신분, 언어장벽, 교육격차 등으로 인해 많

은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겪고 있기 때문에[9], 중도입국 청소년의 학교 진입의 장벽을 낮출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중도입국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학교적응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의 이중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문화적응스트레스가 학교적응,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학교적응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문화적응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패널 2기 2차년도 데이터 활용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횡단적인 시점에서 살펴보았다는 한계점이 있다. 추후 시간의 흐름에 따른 중도입국청소년들의 발달과 그 변화추이를 살펴보는 연구가 진행되어 횡단적 분석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참고문헌

[1] 김영란·이자영. (2021). 중도입국 청소년이 지각하는 초기 사회 적응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에 관한 개념도 분석. *다문화와 평화*, 15(3), 55-76.

[2] 김은경·김종남. (2016).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심리사회적 적응의 관계: 자아정체감의 매개효과와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다문화교육연구*, 9(4), 21-43.

[3] 김지혜. (2019).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우울과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시설환경*, 17(3), 115-124.

[4] 노보람·정정화·최나야·이강이. (2019).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대한 외모만족도와 한국어능력의 종단적 영향 및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7(3), 407-417.

[5] 박동진·김송미·박경아. (2022).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역량과 자아존중감의 연속다중매개효과.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5), 803-812.

[6] 서보준. (2017).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 *미래청소년학회지*, 14(3), 111-133.

[7] 서은주(2022). 중도입국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매개효과와 성별의 차이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8] 손은영·서호찬. (2022).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13(4), 1331-1341.

[9] 이명희·김기화·황진민·이재창·허은지. (2017). 다문화 예비학교의 역할과 개선과제-한국어 강사의 교육 경험을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23(4), 409-432.

[10] 이상균·박현선·노연희·이채원. (2012). 다문화가족 아동의 문화변용스트레스 및 문화자본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긍정적 자기개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긍정적 자기개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38), 235-264.

[11] 임선아. (2018). 다문화 청소년의 집단괴롭힘 경험과 학교적응: 자아탄력성과 도움을 주는 어른의 보호역할 검증. *아동과 권리*, 22(2), 195-214.

[12] 장명선, & 송연숙. (2012). 서울시 중도입국청소년 현황과 지원방안.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연구사업보고서, 1-324.

[13] 전병주. (2012).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사회적 자본 및 문화변용스트레스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융복합연구*, 10(11), 29-38.

[14] 전수정·윤혜미. (2013).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방임, 문화변용스트레스 및 자아존중감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학교사회복지*, 24, 153-179.

[15] 조혜영·양계민. (2012). 중도입국청소년 학업실태 및 진로포부에 대한 탐색적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14(3), 141-168.

[16] 최경란·홍지영. (2018).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부모애착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문화적응스트레스의 매개효과. *한국청소년연구*, 29(1), 347-374

[17]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3). 통계연보. (<https://www.immigration.go.kr>)

[18] Berry, J. W., Kim, U., Minde, T., Mok, D. (1987). Acculturative Stres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5, 235-257.

[19] Birman, D., Trickett, E., & Buchanan, R. M. (2005). A tale of two cities: Replication of a study on the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of immigrant adolescents from the former Soviet Union in a different community context.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5(1-2), 83-101.

- [20] Curran, P. J., West, S. G., & Finch, J. F. (1996).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1(1), 16.
- [21] Finch, B. K., & Vega, W. A. (2003). Acculturation stress, social support, and self-rated health among Latinos in California. *Journal of immigrant health*, 5, 109-117.
- [22] Honey, J. D., Magana, C. G. (2002). Psychological Predictors of anxiety among immigrant Mexican migrant farm workers: Implication and treatment. *Cultural Diversity and Ethnic Minority Psychology*, 8(3), 247-289.

정 보 라 (Jung Bora)



- 2022년 3월~현재: 수원시정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 위촉연구원
- 2024년 03월: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 관심분야: 사회복지, 다문화가족, 다문화청소년, 중도입국청소년
- E-Mail: 01194845421@naver.com

박 현 승 (Hyun Seung Park)



- 2024년 현재: 서울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성산효대학원대학교 효교육학과 교수
- 2010년 5월: 미국 Calvin Bible 대학교 대학원 철학박사(Ph.D)
- 2020년 8월: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M.S.W)
- 성산효대학원 대학교 어학당 부원장
- 2016년 1월~현재: (사)대한노인복지진흥회 대표이사
- 2024년 현재: 안양대학교경영행정대학원, 세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관심분야: 노인복지, 노인상담, 청소년복지, 다문화복지
- E-Mail: geumbat1004@daum.net